



보도시점 2026. 4. 13.(월) 16:00  
4. 14.(화) 조간

배포 2026. 4. 13.(월) 14:00

## 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 동물병원·의약품유통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월) 오후, 서울에서 농식품부 김정옥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일시/장소 : 2026년 4월 13일(월), 14:00~15:00 / 서울 럭키컨퍼런스
- \* 참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 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 \* (동물용) 질병진단키트, 검사시약, 대동물 연속주사기 등,  
(인체용-동물겸용) 주사기(1·3cc), 수액, 수액연결줄 등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기기유통협회 등도 참여하여 상황을 공유하였다.

농식품부 김정옥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병원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동물병원협회, 대한수의사회 등에게는 “각 동물병원이나 수의사 차원에서도 의료제품의 불필요한 재고 비축 등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미영 (044-201-2651)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임수현 (044-201-2656)